

[단독]태릉골프장 옆 동북권 첫 수소충전소...軍이 '퇴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입력 : 2020.08.11 15:40

국방부, 서울시 사용허가 신청에 '불허' 공문 보내...그린벨트 '해제' 수소충전소 '배제'



서울시가 육사야구장 주차장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짓기 위해 국방부와 비공개 협의를 벌인 결과 '불허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가 사실상 미니신도시로 변신하지만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전기차 인프라는 배제되는 것이다. 주차장 등 육사야구장 시설들은 1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인 태릉골프장 부지와 맞닿은 곳에 있다.

11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노원구 공릉동 25-5, 산 230-25 일부 등 국방부 소유지에 대해 서울시가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용허가 안건을 거부했다.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는 "노원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관리운영중이고 충전소 설치로 인해 주차장 시설사용 제약 및 대체부지 사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대상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는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됐다. 사용부대인 육군사관학교의 의견도 반영된 결과다. 노원구가 2015년 9월 육사와 MOU(업무협약)를 맺고 주차장을 비롯한 육사야구장 시설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대 60억원 가량을 투입해 육사야구장 주차장에 동북권 첫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해 왔다. 국유지를 활용한 자체사업을 벌인다는 목표로 지난 6월 무렵부터 국방부와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육사야구장/사진제공=노원구

배출가스가 없는 수소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는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시내에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장기 구상도 세웠다. 정부도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인증 대상품목 범위를 확대기로 한 상태다.

그럼에도 동북권에 전무한 수소충전소가 확충되기 어려워졌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서울시는 지난 4일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시내에서 가동 중인 수소충전소는 국회·강동상일 등 2곳 뿐이다. 상암·양재충전소 2곳에 개선 공사가 예정됐다. 다만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는 2021년 강서·진관 2022년 중랑·염곡 2023년 도봉·상암 등 순으로 공영차고지에서 계속 확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노원구로부터 협조가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다른 지역에서 인프라확충을 모색할 것이며 올해 수소버스충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지자체 등 기관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항상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예비부대(경기남부시설단)가 사용부대인 육사 등 의견을 검토해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시의회서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 신중론
[단독] 2022년 상암에 국내 첫 '수소체험관' 들어선다
20분 초고속 충전·매연제...세계는 지금 '친환경차' 실험 중